

‘하얀거탑’의 장준혁과 ‘키나제 사건’의 라커

글 | 이은정 _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ejung@kyunghyang.com

요즘 모방송사의 의학드라마 ‘하얀거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처음에는 주인공 장준혁(김명민 분)이 대학병원 외과과장 자리를 놓고 존스 홉킨스의대에서 유학한 노민국(차인표 분)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더니 요즘은 췌장암 수술 환자의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잘못을 권력으로 덮어두려는 ‘장준혁식’ 해법

‘하얀거탑’은 비록 그 배경이 병원이고 주인공들이 의사지만 과학자 입장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과학자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전문가 집단에 속한다. 또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그 지식의 혜택을 누리는 환자 혹은 대중들은 지식 자체에서 소외되어 있다.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 비해 우위의 입장에 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면 선과 악이 분명하다. 장준혁은 자신의 출세에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하고, 스스로의 오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후배 의사에게 위증을 강요한다. 또 환자 가족을 무시하며, 동료 의사들과 학문적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한다.

반면 최도영(이선균 분)은 모든 환자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항상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고민한다. 대학 교수로서의 장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고자 환자 가족의 편에서 증언에 나선다. 누가 보더라도 최도영처럼 양심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얀거탑의 원작에 따르면 장준혁은 법정에서 위증이 발각되면서 의료 소송에서 지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 안타까움을 갖는다.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다면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인간으로서의 명예는 지켰을 텐데 오히려 잘못



을 덮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다 스스로의 탓에 간혀 버린다는 것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최도영처럼 숨기는 것 없이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오히려 장준혁처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작은 실수’를 덮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황우석연구팀의 줄기세포 사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준혁식’ 해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네이처에서 여성 연구원들의 난자제공 의혹을 제기했을 때 연구책임자는 그 사실을 단호히 부정했다. 또 해당 연구원은 “사실이 아니다”, “영어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잘못 전달됐다”며 자신

이 말한 내용을 부정했다(1년여 후 조사 결과 당시 네이처의 보도가 정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줄기세포 논문 의혹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PD수첩에 의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를 덮고 가려했기 때문에 무리한 일들을 벌이게 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네티즌에 의해 논문 조작 사실이 밝혀지고 큰 불명예를 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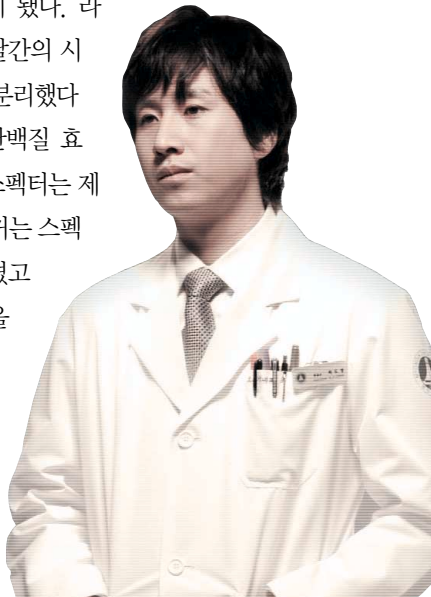
전문가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라커식 해법'

하인리히 창글의 '과학의 사기꾼'에 실린 '스펙터의 키나제 사건' 사례를 보면 장준혁과는 다른 해법을 볼 수 있다.

1980년 1월, 미국 코넬대학의 유명한 생화학자 에프라임 라커 교수의 실험실에 24세의 박사과정 연구생 마크 스펙터가 들어온다. 라커는 스펙터에게 '나트륨-칼륨 ATPase'를 분리해내는 일을 첫과제로 맡겼는데 스펙터는 두 달 만에 그 일을 마쳤다. 그는 뒤이어 나트륨-칼륨 ATPase가 암 세포에도 들어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연구결과로 지도교수인 라커는 스펙터를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다.

라커는 스펙터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scr유전자가 암세포로 변이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게 됐다. 이 이론은 학계에 돌풍을 일으켰고 1981년 7월 사이언스에 논문이 발표됐다. 라커는 당시 68세의 저명한 생화학자로 노벨상 후보로 추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코넬대학의 다른 교수는 스펙터의 연구가 재현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스펙터가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라

커는 스펙터에게 한 달간의 시간을 주고 스펙터가 분리했다고 주장하는 4개의 단백질 효소를 만들게 했으나 스펙터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커는 스펙터의 연구를 금지시켰고 연구소에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스펙터는 논문 데이터뿐 아니라 자신의 학력과 이력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졸업했



다고 주장한 미국 신시내티 대학은 다닌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수표 위조로 금고형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 라커 교수는 처음에 지도 학생을 지나치게 믿는 실수를 했다. 스펙터의 조작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 콜로라도대학의 레이몬드 에릭슨은 라커에게 스펙터가 만든 혈청이 이상하다는 지적을 했고, 로버트 갈로도 스펙터의 실험을 해봤으나 재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이상한 조짐이 있었지만 라커는 스펙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라커 교수는 조작이 밝혀진 뒤에는 발 빠르고 올바른 대처를 했다. 스펙터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문이 제기된 모든 논문을 철회했다. 또 해당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자신이 맡았던 여러 가지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이러한 노력들로 라커의 학문적 명예는 타격받지 않았다. 미국의 생물학회는 그에게 '바람직한 교수상'을 수여하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고 한다. 라커는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으며 1991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 혹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었다면 장준혁의 해법을 따를 것인가, 라커의 해법을 따를 것인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길게 사는 길이다. ㉮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경향신문사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등을 거쳐 현재 과학전문기자로 활동중이며, 2006년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을 수상했다.